

李賢輔 漁父歌의 詩史的 位置에 관한 考察

교양과
전임강사 장 선 희

I. 序 言

인간을 둘러 싸고 있는 직접적인 생의 환경은 自然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생을 영위해 나갈 터전을 마련해 주며, 인간 또한 자연이란 외적 상황 내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정서·사상을 胚胎·成長시켜 왔다. 자연은 인간을 낳아 준 어버이이며 인간은 자연에서 慰撫를 받게 되니, 자연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 중 가장 으뜸가는 신비요 끝없이 탐구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도 자연에 대한 심미적·정서적인 탐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동양의 문학—중국·한국·일본 등—에서 자연은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시대와 사상의 변천에 따라서 표출되는 자연관에는 상당한 변이가 보이지만 자연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고조되어 이조에 들어서는 江湖文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특질을 형성해 내기까지 되었다. 즉, 우리 국문학에서 진정한 자연미의 발견은 「李朝의 致仕閑客」¹⁾들에 의하여 이루어 졌던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이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자연미를 노래한 江湖文學 중에서도 漁父의 生活과 그의 심정을 읊거나, 그에 假託하여 避世高擧하는 脫俗 賢人이나 致仕 後에 自然에 들어 유유자적 한가로운 자연의 생활에 同化·沈潛했던 漁父의 노래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목하여 이 漁父歌의 形成과 流轉의 과정을 추적해 봄으로써 우리 국문학상의 江湖文學의 한 특질을 재조명하고, 특히 雙巖의 漁父歌가 갖는 詩史上的의 위치를 재확인하려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民謠속의 漁夫歌

민요는 민중 사이에서 자연 발생되어 불려지고 전해 내려오는 노래이다. 우리 민요 중에는 특히 勞動謠가 풍부한데, 노동요란 노동의 피로를 잊기 위해, 또는 노동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부른 것으로, 각각의 생활 현장에서 그들의 노동에 맞는 리듬을 좇아 아무런 가식없이 불려졌던 노래이다. 그리하여, 농사를 業으로 삼는 지역에서는 그들의 작업 동작에 따른 여러

1) 조운제, 「국문학 개설」(서울: 탐구당, 1976) pp.423~424.

종류의 農謠가 불리어 졌으며,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노래가 불려졌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생활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을 우리는 漁夫라고 부른다. 이는 문학 작품상에 나타나는 漁父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즉, 「漁夫는 직업적이고, 漁父는 有閑階級の 풍류적인 사람」²⁾이라고 규정하였듯이 漁父는 직업적·영리적 목적을 지니지 않은 假漁翁, 곧 江湖의 한적한 생활을 동경하고 避世하여 孤高하고 隱遁의인 생활을 즐겨하는 隱士를 가리키며 漁父의 생활 또한 이러한 隱士들의 脫俗의이고 超脫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假漁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동경했던 것이 漁夫들의 현실적·실제적 생활에서 노동의 수고와 생존의 치열한 대결을 제외시킨 閑暇와 風流만을 뽑아낸 것이므로 漁夫들의 삶이나 고기 잡는 일, 바다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식견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실제의 漁夫들이 그들의 생활의 터전인 바다에서 작업하며 불렀던 漁夫歌를 먼저 一瞥할 필요가 있고 이들 漁夫의 노래인 漁夫歌와 假漁翁의 노래인 漁父歌와의 연계성 및 유사성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임동권님의 「한국민요집 I. II. III」³⁾을 통해 보면, 漁夫노래 29편, 노 짓는 노래 11편, 뱃노래 39편이 있다. 그 중 몇 작품을 들어 보자.

ㄱ. 어부노래 (292, 한국 민요집 I).

어기여차 소리에는 닷 감겨 간다.
천고리에 만고리여
이옛사 소리에 닷올라 온다.

대천 바당에 멜사가듯
요디이요디야 닷올라 온다
해도 떴다 달도 떴다
우리네 그물엔 멜도들었네

기당죽은 발갈취나

녹말죽은 염송애기나
죽어지민 그뿐이여
사농공상 직업중에
우리네 어장이 제일이여

²⁾ 박성의, 「松江·蘆溪·孤山の 詩歌文學」(서울: 현암사, 1966) p.487.

³⁾ 임동권, 「한국민요집 I. II. III」(서울: 集文堂, 1975)

(후렴)

(아-아아-야에-에에-요)

(에-헤에-야어-어-라)

(제주지방)

나. 어부노래 (633, 한국민요집 II)

에이야찬이야 에이야찬이야

에이야찬이야 에이야찬이야

에이야찬이야 에이야찬이야

말도한다 에이야찬이야

다구지게잡아댕겨라 -

헛찬이다 -

힘차게댕기소 -

그물을바로놓고 -

꼬래이가앞선다 -

힘도합하고 -

얼매나들었는고 -

빨리땡기라 -

에이야찬이야 -

모다그리라 -

(남해지방)

다. 漁夫노래(628. 한국민요집 II)

어허이야 두이야

어허야차 소리에

배내려 오고

두이야차 소리에

땃감겨가네

어허이야 두이야

어허이야 두이야

한손으로 하늘을 잡고

한손으로 고기를 잡네

어허이야 두이야

어허이야 두이야

하느님의 은혜로써

용왕님의 덕분으로

집의상천 덕분으로

큰고기가 올라오네

어허이야 두이야
어허이야 두이야

(서울지방)

ㄹ. 뱃노래 (645. 한국민요집 II)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만경창과 배 띄어라
이제 가면 언제 오지
오실 날을 알려주오

모란봉이 변하여서
대동강이 될지라도
너와 나와 두 사람이
변치말자 굳은 언약

세상이 이다지도
야속무정 하단말까
새벽서리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북방소식 전해다오

(대전지방)

ㅁ. 뱃노래 (641. 한국민요집 II)

여기여차 어야디야
뒷산은 멀어지고
앞산은 가까와온다
여기여차 어야디야

오동추야 밝은달은
넘생각만 절로난다
여기여차 어야디야

이놈 팔자 무슨 열로
여기여차 뱃일이나
여기여차 어야디야

푸른물결 헤치면서
환고향을 언제 할까
여기여차 어야디야

둘러쌌네 둘러쌌네

칠산연평에 둘러쌌네
여기여차 어야디야

잘도간다 잘도간다
우리아똥단배 잘도간다
여기여차 어야디야

땀이나네 땀이나네
그물당기에 땀이나네
여기여차 어야디야

(진도지방)

ㄴ. 뱃노래 (735. 한국민요집Ⅲ)

어기야디야차 어야디야
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후렴)

부딪치는파도소리 잠을깨우니
들려오는돛소리 처량도하구나
(후렴)

망망한해도중에 북을울리며
원포귀범으로 돌아를오누나
(후렴)

만경창파에 몸을실리어
갈매기로벗을삼고 싸워나가노나
(후렴)

창창한물결에 유랑한소리는
이내성중어적이 분명하고나
(후렴)

낙조청강에 배를띄우고
술렁술렁노저어라 달맞이가잔다
(후렴)

어기여차힘을주어 닻을감으며
순풍에돛을달고 돌아를오누나
(후렴)

소정에몸을신고 잠간졸을때
어디서수상어적 나를깨운다
(후렴)

역수한파저문날에 홀로앉았으니
 돛대치는소리도 서글프구나
 (후렴)

창해만리 먼바다에
 의로운등불만 깜박거린다
 (후렴)

연파만경수로창과 불리워갈제
 뱃전은너울너울 물결은출렁
 (후렴)

하늬바람마파람 마음대로불어라
 키를잡은이사공이 갈곳이없다네
 (후렴)

연평바다조기잡아 많이신고서
 모진풍랑헤치면서 돌아올오누나
 (후렴)

닷을놓고노를저으니 배가갔느냐
 알심없는저사공아 닷길어올려라
 (후렴)

밀물셀물드나드는 세모래사장에
 우리님이딜고간 발자취
 내어이알소나
 (후렴)

안개는자욱하여 앞이안보이니
 어서바빼안개걸혀 물에다델까나
 (후렴)

바람앞에장명등은 꺼지건말건
 우리들의사랑만은 변치마잔다
 (후렴)

(서울지방)

이들 민요에서 보는 漁夫의 노래는 孤高·閑適을 즐기는 餘裕보다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生死를 좌우하는 자연과의 대결속에 벌이는 노동을 통해, 보다 나은 경제적 수확을 획득하려는 실제적이고 즉생활적인 감정의 표출이 대부분이다. 그들 漁夫들은 작업을 위해 배를 띄우고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주위의 자연을 玩賞할 수 있는 여유는 적으며 대부분이 자연을 順服하거나 타협해야 하는 畏敬의 대상으로써 표출시킨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삶의 환경이나 방

법에 대해 혐오감이나 거부의 의식대신 절대적 순응성과 일체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이러한 노동의 노래가 지적인 갈등이나 분열이전의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생명적인 활동을 노래하는 단순하고 정직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민요중의 곳곳에서 (ㄱ-ㄴ) 漁父歌와 유사하거나 일치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民謠 漁夫歌와 創作 漁父歌와의 연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漁夫歌는 실제 漁夫들의 생활과 그 속에 스며있는 정서를 통하여 假漁翁들에게 漁夫生活속의 풍류와 멋을 발견하고 즐기게 하였으며, 이러한 漁父歌가 창작된 후 다시 민요속에 침투되어 서로간의 유사성을 보여 주게 되었다고 하겠다.

대체적으로, 有關階級인 작자층에 의하여 형성된 漁父의 모습은 유유자적하고 避世高擧하는 仙人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대부분 중국의 문학 등에서 보이는 漁父의 유형과 일치한다. 즉, 周文王의 스승이었던 太公望은 渭水가에서 避世하며 垂釣하던 聖人으로 나타나며 莊子の 漁父篇에 보이는 漁父역시 知德을 겸비한 聖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屈原의 漁父篇에 나오는 漁父도 淡泊安閑한 理想的인 人物로 드러나며, 陶淵明의 「桃花源記」에서 보이는 漁父는 假說의 別天地인 무릉도원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脫俗的이며 孤高한 漁父의 生活과 夢幻的인 理想鄉의 이야기는 後代의 사람들에 의해 높이 欽慕되어 많은 유사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다.

Ⅲ. 樂章歌詞의 漁父歌

우리 나라에서 漁父歌가 收錄된 最古의 문헌은 樂章歌詞이다. 그렇지만, 이 樂章歌詞에 실려 있는 漁父歌의 제작연대나 작자에 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 의견이 분분한 형편이다. 芝峰 李晔光⁴⁾은 「長歌則 感君恩·翰林別曲·漁父詞 最久」라고 하여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취급하였으며, 後代의 漁父歌 改作者인 李賢輔⁵⁾·尹善道⁶⁾나, 漁父歌에 관심이 많았던 李滉⁷⁾같은 이들은 이 漁父歌가 어느 때, 누구의 所作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근래의 여러 학자들 중에도 고려때부터 전해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⁸⁾도 있고 이조 태종 이전부터 전해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⁹⁾도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⁴⁾ 李晔光, 「芝峰類說」卷十四.

⁵⁾ 李賢輔, 「巖巖集」卷三, 漁父歌序文: 漁父歌兩篇 不知爲何人所作……

⁶⁾ 尹善道, 「孤山遺稿」卷之六, 漁父四時詞 跋文: 東方古有漁父詞未知何人所爲……

⁷⁾ 李滉, 「退溪集」卷四十三, 書漁父歌後: 世所傳漁父歌… 而作者姓名無聞焉

⁸⁾ 김사염, “도학자의 가곡관”, 「경북대 논문집」1집 1956. p.31.

박성희, 「송강·노계·고산의 시가문학」(서울: 현암사, 1966) p.488.

최재호, “운고산의 어부사시사연구” 「동국대 국어국문학 논문집」5집, 1966. p.12.

이우성, “고려말 이조초의 어부가” 「성대논문집」9집, 1964. p.26.

이재수, 「운고산 연구」(서울: 학우사, 1955). p.132.

⁹⁾ 조운제, 「한국시가사강」(서울: 을유문화사, 1954) p.258.

漁父歌라는 歌名을 傳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李齊賢의 益齋集¹⁰⁾에서 보이는데, 고려 忠烈王 末年에 登第하여 忠宣·忠肅·忠惠·忠穆王에 걸쳐 任官되었던 金永暉이라는 사람은 醉後에 매양 妓生 豹皮로 하여금 漁父詞를 부르게 하여 이를 듣고 즐겼다고 하였다. 이로 짐작한다면, 고려 忠穆王 이전에도 漁父歌가 불리어졌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때의 漁父歌가 바로 樂章歌詞의 漁父歌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또, 太宗實錄¹¹⁾에 보면

上王이 임금을 맞아 경희루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 上王이 예전에 金子恂이 불렀던 漁父歌를 들으니 심히 좋았다하여 다시 金子恂을 불러서 漁父歌를 唱하게 하고 듣고 즐겼다.

하였다. 그러면, 金子恂이 부른 漁父歌는 또 어떤 것이었을까? 이에 대하여 李在秀¹²⁾는 金永暉의 漁父歌, 金子恂의 漁父歌, 樂章歌詞에 실린 漁父歌를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았는데, 李佑成¹³⁾은 그에 反論을 표명하고 그 근거로써 樂章歌詞에 실린 漁父歌 九章 終句에 益齋의 詩句인 「風流未載西施」¹⁴⁾가 引用되어 있는데 樂章歌詞의 漁父歌와 金永暉의 漁父歌가 같은 것이라면, 金永暉보다 後世人인 李齊賢의 詩句가 들어 있다는 것은 時期的으로 附合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樂章歌詞에 실린 漁父歌의 作者를 고려말의 文臣인 漁村 孔俯일 것이라며 그 근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孔俯란 사람은 孔子의 五十六世孫으로 공민왕때에 고려에 귀화하여 昌原伯에 封해졌던 紹의 孫子이다. 그는 고려 우왕 2년에 登科하여 鄭圃隱·李牧隱 등과 交友하였으며 草隸에 능하였다고 한다. 그는 벼슬에 있으면서도 漁父歌를 즐겨 노래하였는데 당시의 많은 文人·學者들이 그가 부르는 漁父歌에 깊이 共感하였다고 한다. 특히, 陽村 權近(1352~1409)은 孔俯와 同年輩로서 呼兄呼弟하며 지내던 사이로 그를 위하여 漁村記¹⁵⁾를 지었으며 鄭道傳도 이 漁村記의 後¹⁶⁾에서 「伯共은 술잔을 들 때 마다 漁父詞를 노래하는데 宮商도 아니고, 律呂도 아니

¹⁰⁾ 李齊賢, 「益齋亂藁」 卷四

悼龜峰金政丞永暉

謝傳風流逐逝波 蒼生有望奈今何

龜峰峰下滿船月 腸斷一聲漁父歌

¹¹⁾ 「太宗實錄」 卷二十三 太宗 十二年 十二月 戊辰條

¹²⁾ 이재수, 전개서, p.132.

¹³⁾ 이우성, 전개논문, p.19.

¹⁴⁾ 李齊賢, 「益齋亂藁」 卷三, 億松都八詠 中 西江月艇.

江寒夜靜得魚遲 獨倚蓬窓卷釣絲

滿目青山 一船月 風流未載西施.

¹⁵⁾ 權近, 「陽村集」 卷十一 漁村記.

漁村吾友孔伯共自號也 伯共與余生年同 月日後 故余弟之 風神疎朗可愛而親 接大科臍腫仕 飄纓紆組 珥筆尙 矚 人固以遠大期 而蕭然有江湖之趣 往往興酣 歌漁父詞 其聲清亮 能滿天地 髣髴聞曾參之歌商頌 使人曾次 悠然 如在江湖 是其心無私累 超出物表 故其發於聲者如此夫……

¹⁶⁾ 鄭道傳, 「東文選」 卷之一百三 題漁村記後

며 높고 낮음이 서로 어우러지고 節奏가 諧協한다고 하면서 孔俯의 漁父詞를 듣고 可遠의 漁村記를 읽으면 마음에 승하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公俯가 불렀다는 漁父歌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알려 졌던 것 같은데, 李佑成¹⁷⁾은 孔俯의 漁父歌를 듣고 그 興象을 묘사한 權近·鄭道傳의 詩가 樂章歌詞의 漁父歌의 내용과 매우 상통한다고 지적하면서 孔俯가唱한 漁父歌가 樂章歌詞의 漁父歌와 동일하거나 더 나아가 樂章歌詞 漁父歌의 作者가 바로 孔俯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金永晫이 부른 漁父歌나 樂章歌詞에 실린 漁父歌가 같은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漁父歌는 원래 退溪가 「書漁父歌後」¹⁸⁾에서 말한 것처럼 古人들의 漁父의 生活이나 漁村에 관한 詩句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고, 우리의 漁父歌 形成에 큰 영향을 주었던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작품들이 제작되었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江湖의 生活을 동경하고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漁父歌가 나왔을 것은 분명하다. 더우기,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武臣들의 집권과 外勢의 잦은 침입, 고려의 멸망에 즈음한 혼란한 현실에서 탈피해 보려는 뜻에서도 자연은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상당 수의 隱者들이 나왔으며 현실적으로 관료 생활을 벗어 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은 그들의 號에 '隱' 字를 즐겨 쓰는 풍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賢者避世의 사상이 팽배하였던 시기에 孤高하고 유유한 江湖의 生活을 사모하여 노래했던 漁父歌가 많이 나왔고 사랑받았을 것은 당연한 사실로써 金永晫·孔俯·金子恂 등은 그 당시의 漁父歌 애호가들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樂章歌詞에 수록된 漁父歌는 고려 忠穆王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고려말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널리 膾炙되었고, 李朝에까지 流傳되다가 樂章歌詞에 정착되었다고 보며 作者는 아직까지 특정한 인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樂章歌詞의 漁父歌는 대부분이 「중국의 漢詩句 중에서 漁父의 生活이나 江湖의 閑情에 대하여 읊은 것을 모아서 엮어 놓은 것」¹⁹⁾으로 各章은 각각 漢詩 七言 四句로써 一章을 구성하고 各 漢詩句들 사이에는 우리말로 吐를 달았으며, 二行과 四行사이에는 배를 부리는 순서에 의하여 漁父歌 특유의 여음을 삽입하고, 四行과 六行사이에는 흥을 돋구기 위하여 단순히 뱃소리를 묘사한 “지곡총 지곡총 어스와 어스와”를 一律적으로 붙였다. 樂章歌詞에 실린 漁父歌는 다음과 같다.

漁 父 歌

- 一. 雪鬢漁翁이住浦間^하야서
 自言居水 | 勝居山이라^하느다
 ㄱ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ㆁ

¹⁷⁾ 이우성 전개논문, p.20.

¹⁸⁾ 李滉, 「退溪集」卷四十三, 書漁父歌後: 世所傳 漁父詞 集古人漁父之詠……

¹⁹⁾ 최재호, 전개논문, p.15.

- 早潮 | 纒落거를晚潮 | 來 ㅎㄷ다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一竿明月이亦君恩이샷다
- 二. 靑菰葉上에涼風이起커를
 紅蓼花邊에白鷺 | 閑 ㅎㄷ다
 달드러라
 洞庭湖裏에駕歸風호리라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一生蹤跡이在滄浪 ㅎㄷ다
- 三. 盡日泛舟煙裏去 ㅎ고
 有時搖棹 ㅎ야月中還 ㅎㄷ다
 이어라이어라
 我心 · 處自忘機호라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一江風月이趁漁船 ㅎㄷ다
- 四. 萬事를無心一釣竿 ㅎ으니
 三公으로도不換此江山이로다
 돌드라라돈드라라
 帆急 ㅎ니前山이忽後山이로다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生來에一軀로趁 · 身호라
- 五. 東風西日에楚江深 ㅎ니
 一片苔磯오萬柳陰이로다
 이퍼라이퍼라
 綠萍身世오白鷗心이로다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隔岸漁村이兩三家 | 로다
- 六. 一尺鱸魚를新釣得 ㅎ야
 呼兒吹火荻花間호라
 빈 세여라빈 세여라
 夜泊秦淮 ㅎ야近酒家호라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와
 一瓢에長醉 ㅎ야任家貧호라
- 七. 落帆江口에月黃昏커를
 小店에無燈欲閉門이로다
 듯디여라듯디여라
 柳條에穿得錦鱗歸로다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夜潮留向月中看호리라
- 八. 夜靜水寒魚不食이어를

- 滿船空載月明歸호노라
 빈미여라빈미여라
 釣罷歸來繫短篷호리라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繫舟唯有去年痕이로다
- 九. 極浦天空際一涯호니
 片帆이飛過碧瑠璃로다
 아의여라아의여라
 帆急호니前山이忽後山이로다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風流未必載西施니라
- 十. 一自持竿上釣舟호요므로
 世間名利盡悠悠로다
 이퍼라이퍼라
 桃花流水鱖魚肥호두다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款乃一聲山水綠호두다
- 十一. 江上晚來堪畫處에
 漁翁披得一簑歸로다
 돛더러라돛더러라
 長江風急浪花多호두다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斜風細雨不須歸니라
- 十二. 濯纓歌罷汀洲靜커를
 竹徑紫門猶未關이로다
 서스라 서스라
 繫舟猶有去年痕이로다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明月清風一釣舟로다

김사엽²⁰⁾은 위의 漁父歌에서 助興句 및 後斂을 제외하면 대체로 一行이 三分節되는 고려 가요의 보편적인 詩型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각 행을 일률적으로 三分節하는 것은 詩의 내용면의 고찰에서 볼 때에는 다소 무리이다. 그렇지만, 聯詩形을 취하는 것이나 餘音의 삼입 형식의 제약에 굳이 얽매이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는 점 등등에서는 고려 가요에서 일반적으로 추출되는 특성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또, 이 漁父歌의 성립 연대를 고려시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겠다. 한편, 여음의 전개를 보면,

一章 빈미여라(배를 띄워라)

²⁰⁾ 김사엽, 전개논문, p.31.

- 二章 단드러라(달을 들어라)
 三章 이어라(배를 저어라)
 四章 돌드라라(돛을 달아라)
 五章 이퍼라(노래를 불러라. 咏)
 六章 빈 세여라(배를 세워라)
 七章 돛디여라(돛을 내려라)
 八章 빈 밍여라(배를 매어라)

처럼 出航에서 歸船까지의 순서에 맞도록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록 眞漁翁이 아닌 假漁翁이기는 하지만, 漁父歌의 撰者들이 그들이 동경하는 漁父들의 풍류와 멋에 대해 어느 정도의 상식은 갖추고 있었는지, 스스로 江湖에 낙향하여 직접 현장에서 漁夫들의 삶을 눈으로 보면서 체득하였는지, 또 口傳되어 오던 民謠들에 접하면서 漁夫들의 실제적 체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감대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九章부터의 여음들은 前八章까지의 여음들과 중복되어 쓰여지기도 하며 (九章 아의여라. 十章 이퍼라. 十一章 돛더러라. 十二章 셔스라) 漢詩句들도 四章 四行의 「帆急하니前山이忽後山이로다」가 九章의 四行에서, 八章 六行의 「繫舟唯有去年痕이로다」가 十二章의 四行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李在秀²¹⁾은 앞 八章까지의 撰者가 八章만으로는 부족을 느껴서 다시 加筆하였는지 아니면 九章부터는 딴 사람이 前 八章에다 추가한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하였다. 하지만, 이것 또한 漁父의 生活를 동경하고 흠모하는 유사 내용의 작품들이 여러 개 전해 오다가, 후세인들에 의해 한 작품의 亞流들로 간주되어 수집·改作되어 樂章歌詞에 수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고려 후반기에 제작되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던 漁父歌는 李朝에 들어서는 점차로 잊혀져서 마침내는 世人들의 耳目에서 거의 사라져 갔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漁父歌의 담당층이었던 士大夫의 文學的 特性에 대해서이다. 「漁父歌의 세계는 바로 사대부 문학의 세계이다」²²⁾ 물론, 漁父歌의 세계가 바로 「사대부 문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一面은 된다. 이우성²³⁾은 고려 시대의 문학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鄉風體 歌作을 중심으로 한 고려 전반기의 문학을 「貴族階級の 文學」, 景氣體歌·時調내지 漁父歌 계열에 속하는 고려 후반기의 문학을 「士大夫의 文學」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대부(士大夫)란 ‘사(士)’와 ‘대부(大夫)’의 복합어이다. 그들은 문학적 교양을 지닌 文人學者이며 또한 政治行政을 담당하는 官人이었다. 즉, 중소지주 출신의 官人으로서 지방에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독서를 통한 문학적 교양을 쌓아 가지고 중앙의 관료로 진출하였다. 그러한 그들의 삶의 양식에는 지주로서의 생활과 관인으로서의 생활의

²¹⁾ 이재수, 전계서, p.150.

²²⁾ 이우성, 전계논문, p.14.

²³⁾ 이우성, 전계논문, p.14.

양면의 세계가 존재한다. 徐居正²⁴⁾은 「쌍계재기(雙溪齋記)」에서

사군자(士君子)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의 세계는 출(出)이요, 다른 하나의 세계는 처(處)이다. 놓여진 처지가 같지 않으므로 그 좋아하는 바 또한 서로 같지 않다.

고 하였다. 「여기에서 ‘출(出)’은 중앙의 관인으로 나아감을 뜻하는 것이요, ‘처(處)’는 시골의 전원으로 은퇴함을 뜻한다」²⁵⁾ 이러한 사대부의 생활의 양면성은 그들의 문학으로 하여금 兩面의 世界를 가지게 하였다. 「經國의 文章으로 不朽의 盛事를 粧飾하는 館閣文學~官僚의 文學과 逸世의 情趣를 追求하고 閑適한 人生을 自樂하는 江湖文學(山林文學, 田園文學 等이다 同一範疇에 屬하는 것임)~處士의 文學이 그것이다」²⁶⁾ 「士大夫 文學의 형성은 고려 후반기로 처음 武臣執權下에서 武臣의 庇護를 받은 新進士人들은 景幾體歌를 창작하였다. 景幾體歌는 翰林別曲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豪華롭고도 意氣에 찬 官僚的 文學의 世界였으며 이러한 景幾體歌의 세계와 아울러 漁父歌의 世界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 漁父歌의 세계가 곧 處士의 文學의 세계였다」²⁷⁾

그러나, 고려의 사대부들은 漁父歌를 즐겨 노래하였지만은 실제로 江湖에 완전히 귀의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조정에서 관료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때때로 江湖의 情趣를 간접적으로 享有하였을 뿐이다」²⁸⁾ 즉, 심정적으로는 ‘處’(시골의 전원으로 은퇴하여 閑遊自適·吟風弄月의 高致를 누리는 세계)하면서 실제의 현실은 ‘出’(중앙의 관료로서 佐君澤民·辭命應制의 官僚的 生活)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대부들이 고려의 멸망과 이조의 건국이라는 대변혁기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꺼져가는 옛 왕조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새로운 왕조의 창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길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처하든지 이미 漁父歌를 부르며 江湖之樂을 구가할 계제는 아니었다. 무너져 가는 옛 왕조에 신의와 충성을 맹세한 사대부들에게는 직접 가해오는 政亂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든지 아니면, 스스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든지 유용하게 漁父歌를 구가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새 왕조의 창업에 적극 가담한 士類들은 건국 사업에 분주하고 골몰한 나머지 江湖의 한가한 풍류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으며, 漁父歌의 다소 은둔적이고 避世의인 성향이 건국 초기의 활발하고 진취적인 기상과는 맞지 않아 또한 외면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더불어 이 漁父歌는 본래 사대부의 文學이었기에, 대중에게 널리 전파되어 생명을 지속시킨 여러 俗謠들과는 달리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최진원²⁹⁾은 이조의 양반 계급과 고려의 사

²⁴⁾ 서거정, 「雙溪齋記」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p.360 재인용).

²⁵⁾ 임형택, 「한국 문학사의 시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p.360.

²⁶⁾ 이우성, 전개논문, p.15.

²⁷⁾ 이우성, 전개논문, p.16.

²⁸⁾ 이우성, 전개논문, p.17.

²⁹⁾ 최진원, “강호가도와 풍류” 『성대논문집』 11집 1966, p.37.

대부의 풍류의 차이 때문에 漁父歌가 망각되어 갔다고 지적했으며 이우성³⁰⁾은 음악적인 관점에서의 고찰로, 고려시대에는 노래로 불리어지던 漁父歌의 唱이 노래 부르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조 양반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IV. 龔巖 李賢輔의 漁父歌

이조 시가문학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自然美의 발견」이다. 사람이 원래 자연 속에서 살고 자연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었으니 자연이 어찌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이해되고 그 美가 발견되었을까마는 이조에 들어 서면서 自然의 美는 남달리 이해되고 玩賞되었다. 이때의 自然美 발견의 중요한 원인으로써 조운제³¹⁾는 「黨爭下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을 들고 참다운 자연미를 구가한 사람으로는 龔巖과 俛仰亭을 꼽았다.

龔巖 李賢輔(1467~1555)는 燕山君4년(1498)에 登科하여 76세에 낙향하여 은퇴하기까지 官界에 머물렀다. 그는 政界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 4차례의 士禍(戊午士禍1498, 甲子士禍1504, 己卯士禍1519, 乙巳士禍1545)를 겪는 등 혼란의 와중에서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일찌감치 出仕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으며, 또한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여러 차례 官職의 사퇴를 희망했었다. 「말하자면 그의 官료 생활은 정치 현실에의 적극적 긍정과 참여가 아니라, 그로부터 떠나야 하겠다는 마음 한편의 간절한 소망과 그러면서도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는 사대부로서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갈등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³²⁾ 그렇지만 그의 政界 은퇴의 뜻은 76세에야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그동안에 그가 자연에 대해 품었던 동경심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고 만년에 江湖에 들자 그 樂에 흠뻑 취하여 지냈다. 그가 老後에 起居했던 汾川은 「水石이 매우 수려한 곳으로 龔巖은 일찌기 여기에서 양친을 위하여 愛日堂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는 明農堂을 구축하여 그 壁上에 歸去來圖를 그려서 자기의 田園歸依의 뜻을 나타내었는데 이 두 건물은 汾川 江邊에 높이 솟은 암석 위에 있다. 그 암석은 灘鳴이 響響하여 耳聽이 막히는 고로 그 바위 이름을 龔巖이라 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雅號를 정하였다 하는데 그 바위의 사방으로는 高山과 長林과 長江이 에워 싸고 있어 매우 絶景이었다」³³⁾고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江湖에 묻혀 그 樂을 즐기던 龔巖은 지금까지 世人의 耳目에서 사라졌던 漁父歌에 우연히 접하고는 그 漁父歌에 깊이 빠져 들었으며, 漁父歌 또한 사대부들의 宦路 生活 가운데 그 餘技로써, 심정적으로만 즐겨 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江湖로 돌아와 名實이 相符한 진정한 江湖의 道樂으

³⁰⁾ 이우성, 전계논문, p.26.

³¹⁾ 조운제, 「한국문학사」(서울: 탐구당, 1979) pp.160~164.

³²⁾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세계의 문학」 1981. 봄호. p.190.

³³⁾ 李賢輔, 「龔巖集」卷三年譜 行狀(이재수, 윤고산연구, p.143. 재인용)

로써 즐겨지게 되었다. 즉, 退溪³⁴⁾가 지적한 것처럼 江湖之樂이 蠶巖에 이르러 비로소 그 「眞」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우성³⁵⁾은 원래 사대부의 생활 구조 속에 處士의 文學-江湖文學의 一面이 내재하여 왔으나 그것이 구체화되기는 역시 고려말을 거쳐 이조초에 들어와서 부터이며 처음 중앙 관료들로부터 지방 관료에게로, 그리고 지방 관료들로부터 江湖處士에게로, 이리하여 漁父歌의 세계는 차츰 확대되면서 그 자체가 본격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蠶巖이 漁父歌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退溪의 記錄³⁶⁾을 인용하기로 한다.

退溪가 어렸을 때에 安東에서 老妓가 부르는 漁父詞를 듣고 기뻐하여 그 대강을 기록하였으나 全調는 알지 못하였다. 後日에 서울에 올라와 벼슬하면서,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을 여러 방면으로 探問하였으나 能히 아는 자가 없었다. 근래에 朴浚이라는 사람이 東方의 노래를 수집하여 一部의 책을 만들어서 刊行하였는데 그 중에 漁父詞가 실려 있었다. 佐郎 黃仲舉(1517~1563, 이름은 俊良, 號는 錦溪, 李滉의 文人이며 蠶巖의 孫婿)가 朴浚의 歌集에서 이 노래를 取하고 또 漁父短歌 十篇을 얻어서 先生에게 바치니 先生이 매우 기뻐하였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말기에 유행되었던 漁父歌는 생산층이었던 사대부들에게는 점차로 외면되면서 妓女층에 의하여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대부들의 풍류에 동참할 수 있었고 또 사대부들의 기호에 맞추어야 했던 기녀들에게로 漁父歌는 전파되었고 차츰 담당층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조 초기에 사대부 문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명맥이 끊긴 漁父歌가 현실에 시달리고 고달팠던, 그러하므로써 더욱 원초적인 고향으로의 회원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을 기녀들에 의해 그 생명을 유지하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전원은 원초적인 삶을 그리는 인간의 귀의처로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귀거래처로서의 전원을 그리는 그리움이 더욱 절실해 지는 때는 인간의 삶이 그들의 현실과 불화에 처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에 애착하여 골몰할 때 보다는 현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스스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경우 전원엔 돌아가 순연한 삶을 누리려는 의욕이 점증되기 마련이다」³⁷⁾ 현실과 불화하거나 버림받아 현실로부터 강한 도피의욕을 느끼는 강도는 기녀신분들이 가장 강했을 것이다. 그들은 원초적인 고향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에 젖어 살았을 것이고 漁父歌는 이런 기녀층에 의해 명맥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담당층의 변화로 내용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후에 어렵사리 이 漁父歌를 손에 넣게 된 蠶巖으로 하여금 改撰의 念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³⁴⁾ 李滉, 「退溪集」卷四十三, 書漁父歌後

³⁵⁾ 이우성, 전계논문 p.18.

³⁶⁾ 李滉, 「退溪集」卷四十三, 書漁父歌後.

³⁷⁾ 李健淸, 「韓國田園詩研究」(서울: 문학세계사, 1986), p.2.

龔巖의 漁父歌 改撰이 완성된 것은 明宗 3년, 그의 나이 83세 때인데, 이러한 改撰은 단시 일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행해진 듯하다. 특히, 같은 同鄉人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退溪는 龔巖 못지않게 江湖生活에 뜻을 두고 致仕後, 鄉里인 陶山에 깊이 파묻혔다. 그는 漁父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龔巖의 漁父歌 改撰에도 깊이 관여하여 그에 대한 문답³⁸⁾이 여러 차례 오고 갔다. 그리하여 후세인 중에는 龔巖이 改作한 漁父歌를 退溪의 作으로 아는 이³⁹⁾도 있었으며 靑丘永言에는 退溪의 作으로 수록되었다. 또한 退溪가 漁父歌를 지었다는 기록⁴⁰⁾도 있으나 실제로 傳하는 것은 없다. 龔巖이 漁父歌 改撰에 착수했던 의도는 龔巖 자신이

다만, 말이 조리에 어긋난 것이 많고, 혹은 중첩되어 있는데, 이는 필시 배껴서 전할 때의 잘못으로 聖賢의 經典의 글이 아니다. 이에 망령되어 고쳐서 一篇十二章은 三章을 버려 九章으로 하여 長歌를 만들어 읊고, 一篇十章은 줄여서 短歌 五篇로 만들고 葉을 붙여서 一部의 新曲을 만들었다.⁴¹⁾

고 밝힌 것이나, 退溪가

先生은 原漁父歌가 너무 길고 지루함을 病弊로 여겨 이에 고쳐서 十二章은 九章으로 하고 短歌 十章은 줄여서 五章으로 하였다.⁴²⁾

고 하였듯이 중복된 것은 피하고 길고 지루한 것은 축약하여 보다 정제되면서도 짧은 새로운 漁父歌로 만들었고 二行과 四行사이에 들어가는 餘音도 배를 부리는 순서와 詩의 내용에 맞게 재배치하였으며 四行과 六行 사이에 삽입되는 韻字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龔巖 漁父歌

一. 雪鬢漁翁이住浦間
 自言居水이勝居山이라흐듯다
 비떠라비떠라
 早潮纔落晚潮來흐듯다
 至菊忽至菊忽於思臥
 倚船漁父이一肩高로다

³⁸⁾ 李 滉, 「退溪集」卷九: 答龔巖李相國集 卷四十三: 與退溪書

³⁹⁾ 최재호, 전계논문, p.20.
 京山 李漢鎮은……………

⁴⁰⁾ 이재수, 전계서, p.144.

⁴¹⁾ 李賢輔, 「龔巖集」卷三, 漁父歌 序文

⁴²⁾ 李滉, 「退溪集」卷四十三, 書漁父歌後

- 二. 靑菰葉上애涼風起
 紅蓼花邊白鷺閑
 달드러라달드러라
 洞庭湖裏駕歸風호리라
 至菊忽至菊忽於思臥
 帆急前山忽後山이로다
- 三. 盡日泛舟煙裏去
 有時搖棹月中還이라
 이어라이어라
 我心·處自忘機라
 至菊忽至菊忽於思臥
 鼓枻乘流無定期라
- 四. 萬事無心一釣竿
 三公不換此江山라
 돌디여라돌디여라
 山雨溪風捲釣絲라
 至菊忽至菊忽於思臥
 一生蹤跡在滄浪라
- 五. 東風西日楚江深
 一片苔磯萬柳陰이라
 이퍼라이퍼라
 綠萍身世白鷗心라
 至菊忽至菊忽於思臥
 隔岸漁村兩三家라
- 六. 濯纓歌罷汀洲靜
 竹逕柴門을猶未關라
 비서여라비서여라
 夜泊秦淮近酒家로다
 至菊忽至菊忽於思臥
 瓦甌蓬底獨斟時라
- 七. 醉來睡著無人喚
 流下前灘也不知로다
 비미여라비미여라
 桃花流水鱖魚肥라
 至菊忽至菊忽於思臥
 滿江風月屬漁船라
- 八. 夜靜水寒魚不食거늘
 滿船空載月明歸라
 달디여라달디여라
 罷釣歸來繫短篷호리라

至菊忽至菊忽於思臥
 風流未必載西施라
 九. 一自持竿上釣舟
 世間名利盡悠悠라
 빈브터라빈브터라
 繫舟猶有去年痕이라
 至菊忽至菊忽於思臥
 款乃一聲山水綠라

改撰된 漁父歌 九章은 龔巖이 序文에서 밝혔듯이 長歌로써 詠할 수 있도록 하였고, 樂章歌 詞의 漁父歌보다 더욱 漢詩에 집착하였는데 이는 龔巖의 改作의도가 創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出處가 분명한 詩文을 사용하려 했던 때문이다. 또한 原歌의 不傳으로 短歌 十章의 모습은 알 수 없고 단지 龔巖이 縮約하여 改撰한 漁父短歌 五章은 다음과 같다.

漁父短歌

제1장

이등에 시름업스니 漁父의 생애이로다
 一葉 片舟를 萬頃波에 띄워두고
 人世를 다니짖거니 날가논주를 알라

제2장

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靑山
 十丈 紅塵이 언매나그렸는고
 江湖에 月白하거든 더욱無心 하애라.

제3장

靑荷에 바블 띄고 綠柳에 고기배여
 蘆荻 花叢에 빈미야 두고
 一般 淸意味를 어니부니 아릅실고

제4장

山頭에 閑雲이起하고 水中에 白鷗이飛이라.
 無心코 多情하니 이두 거시로다
 一生에 시르물넋고 너를조차 노로리라.

제5장

長安을 도라보니 北關이 千里로다

漁舟에 누어신들 니즌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시름아니라 濟世賢이 업스라.

이 漁父短歌는 앞의 漁父歌 九章에서 漢詩句의 충실한 集合에서 오는 자신의 정서 표출의 미흡함을 보충하려는 듯 우리말을 사용하여 노래하였으며 葉을 붙여서 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龔巖은 漁父歌를 원래의 본뜻에 맞춰 改撰한 후로는 前에 즐겨 하던 歌詞는 모두 버리고 오직 이 漁父歌를 생활의 반대로 삼아 侍童들에게 익혀서 부르고 춤추게 하였으니 가위 “傍人望之若神仙人焉”이라 일컬을 수 있는 풍류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龔巖은 고려 후기부터 작자미상으로 전해 내려 오던 漁父歌를 새롭게 改作하여 眞 ‘樂’에 젖어듬으로써 우리 문학상에 참다운 자연의 美를 발견한, 진정한 자연미의 발견자로서 또, 江湖歌道라는 새로운 歌道를 수립한 唱導者로서 후세의 文人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龔巖이래로 수많은 漁父歌系列의 作品들을 산출케 하여 우리 문학에서 풍성한 江湖文學의 시대를 열게 하였다.

V. 結 論

우리 詩歌文學에는 江湖自然을 소재로 하여 그 自然美를 발견하고 노래한 많은 江湖文學作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避世高舉하여 脫俗한 賢人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漁父의 生活이나 그 심정을 읊었거나, 致仕後 自然에 들어 유유자적하는 한가로운 江湖의 生活에 탐닉·침잠하는 내용의 漁父歌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목하여, 이 漁父歌의 형성과 그 流傳과정을 살펴 龔巖 李賢輔의 漁父歌가 우리의 詩歌大學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전개한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文學作品으로서의 漁父歌는 民謠에 나타나는 漁夫의 노래인 漁夫歌와 많은 유사성 및 상이성을 보여 준다. 民謠 漁夫歌는 영리적 목적을 가진 직업인으로서의 漁夫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작업중에 불렀던 노동요이므로 치열한 삶의 현장인 바다에서, 生死를 좌우하는 자연과의 대결 속에 벌이는 노동을 통해, 보다 나은 경제적 수확을 획득하려는 현실적이고도 즉생활적인 표현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文學上에 나타나는 漁父歌는 江湖의 한가하고 풍류있는 생활을 동경하는 假漁翁들의 은둔과 도피적인 생활속의 멋을 주로 노래하였다. 그러나, 漁夫歌와 漁父歌는 그 표출되는 정서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소재·같은 배경을 취하는 데서 느껴지는 유사성이 많이 보인다. 또한, 내용상에 있어서도, 漁夫歌는 漁夫들의 긴박하고도 실제적인 현실성을 假漁翁들에게 보여 주었으며 創作된 漁父歌를 통하여서는 실제 漁夫들이 지나치거나 찾지 못했던 풍류와 멋을 그들 民謠에 덧붙일 수 있어 전혀 다른 상황아래 표출

되는 정서임에도 낯설지 않은 분위기를 공유하였다.

둘째,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漁父歌로 記錄에 보이기는 樂章歌詞의 漁父歌를 들 수 있다. 이 악장가사의 漁父歌는 중국의 漢詩句들 중에서 漁父의 生活이나 江湖의 閑情을 모아 서 엮어 놓은 것으로 제작년대는 고려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작자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다.

세째, 고려 후기에 많은 사람들의 애호를 받았으나 이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忘失되었던 漁父歌는 어림사리 龔巖의 손에 들게 되면서 새롭게 정리·개작되었다. 龔巖은 이 漁父歌의 획득과 그 改作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문학의 중요한 특질을 이루는 自然美의 발견에 진정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江湖歌道라 불리울 수 있는 歌道의 창시자가 되었다. 또한 그의 改撰으로 인하여 漁父歌는 世人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後世의 文人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어 수많은 어부가(漁父歌) 계열의 작품들을 산출시켜 우리의 詩歌文學을 양적·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였다.

또한 龔巖의 改撰된 漁父歌는 후에 短歌文學의 大家라고 불리는 孤山 尹善道에 의하여 이 제까지의 漢詩句 集合의 態를 완전히 벗어 버리고 우리말로 새롭게 변신·창작되어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始源을 마련하였다는데도 주목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孤山遺稿
2. 김사염, “도학자의 가곡관” 경북대논문집1집, 1956
3.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세계의 문학』 봄호, 1981
4. 龔巖集
5. 東文選
6. 박성의, 「고산, 노계, 송강의 시가문학」, 서울: 현암사, 1966.
7. 박준규, “아송가사 연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7집, 1974
8. 박준규, “한국 고시가의 여음고찰” 전남대논문집8집, 1963.
9. 樂章歌詞
10. 윤성근, 「윤선도 작품집」, 서울: 형설출판사, 1982.
11. 유우선, “보길도 고산유적과 어부사시사의 배경시론” 전남대 호남문화연구9집, 1977.
12. 이진청, 「한국 전원시 연구」, 서울: 문학세계사, 1986.
13. 이우성, “고려말 이조초의 어부가” 성대논문집9집, 1964.
14. 이재수, 「윤고산 연구」, 서울: 학우사, 1955.
15. 益齋集 I
16. 임동권, 「한국 민요집 I-V」, 서울: 집문당, 1975.
17. 임형택, 「한국 문학사의 시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18. 정익섭, 「호남가단연구」, 서울: 진명문화사, 1975.

1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5」, 서울: 지식문화사, 1982.
20. 조동일외, 「고전 문학을 찾아서」,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6.
21. 조운제, 「국문학 개설」, 서울: 탐구당, 1976
22. 조운제, 「한국시가 사강」, 서울: 을유문화사, 1954
23. 조운제, 「한국 문학사」, 서울: 탐구당, 1979.
24. 진동혁, “어부의 생활을 읊은 시조와 가사고” 수도사대논문집5집, 1971.
25. 芝峰類說
26. 태종 공정대왕 실록5 제23권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7. 退溪集
28. 최진원, “강호가도와 풍류” 성대논문집11집, 1966
29. 최재호, “윤고산의 어부사시사 연구” 동국대 국어국문학 논문집5집, 1966.

A Study on status of poetic history in Lee Hyun Bo's Eu-Bu-Ka

Chang sun-Hee

Departmen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ere are the number of poems and songs praising beautiful nature in Korean Literature. Lots of volume about Eu-Bu-Ka(漁父歌) in which one compares himself to fisherman engrosses himself into nature takes significant place among these poems and songs.

Therefore, I tried to research the process of Eu-Bu-Ka(漁父歌) of forming and being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lso I endeavored to explain the position of Eu-Bu-Ka(漁父歌) in Korean poems and songs literature. I concentrated especially upon Lee Hyun Bo's Eu-Bu-Ka(漁父歌).

Upon it my study's as follows :

First, Eu-Bu-Ka (漁父歌) has somewhat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comparison with folk songs of fisherman (漁夫歌). The folk songs of fisherman(漁夫歌) which have been sung by professional fisherman is practical and realistic expression to get more catch through labour, struggling against nature Eu-Bu-Ka(漁父歌) created as a work of literature reveals a secluded and refined life of those who had long for isolated life in nature.

Anyway,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which derive from the same background of work and materials between Eu-Bu-Ka(漁父歌) and song of fisherman(漁夫歌). And there are interrelation and similiar eruption of feeling between them.

Second, we can see the oldest Eu-Bu-Ka(漁父歌) in Ak-Jang-Ka-Sa(樂章歌詞). Eu-Bu-Ka in Ak-Jang-Ka-Sa(樂章歌詞의 漁父歌) was compiled some sentences of chines poems which said fisherman's life and secluded life in nature and presumably it was written in the late Goryeo. An author of it was also unknown.

Third, Nong Am(聾巖) Lee Hyun Bo who happened to get Eu-Bu-Ka (漁父歌) which had been missed in the beginning of Lee Dynasty revised it, and devoted himself to it.

Nong Am(聾巖), a real finder of the beauty of nature which is a distinctive feature in our poems and songs literature, an advocate of Kang-Ho-Ka-Do(江湖歌道) influenced his followers to produce abundant sequels to the Eu-Bu-Ka(漁父歌) which caused great contribution to our poems and songs literature in both quality and quantity.